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죠. 그는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의롭지 못하고 아마도 재물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면서 돈없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포학을 일삼는 자였을 거예요. 첨에는 힘없고 뺨없는 과부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니까 듣는듯 마는듯 했어요. 그런데도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는 계속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이러다간 내가 계속 시달리겠구나 여기고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때를 쓰고 기도하고, 끈기있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그런 해석은 틀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1절을 다함께 보시죠! “1.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를 들려주신 목적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건 헬라말로 [엑카케오]라고 하는데 ‘지치다, 활기를 잃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너무 쉽게 지쳐요. 우리의 세상 일에도 그렇지만 영적인 일에도 너무 쉽게 활기를 잃어버려요. 일들이 내 계획대로 잘 풀릴 땐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다가도, 요즘처럼 힘든 소식들, 힘든 상황들을 접하다 보면 쉽게 우리 마음은 지칩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 이유는 ‘내 원수의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는 것이

있어요. 얼핏보면 ‘원수값아 달라’ 는 것처럼 들리는데 원어성경을 찾아보면 헬라말로 [에크디케오] ‘변호하다, 보호하다, 정당하게 다루다’ 라는 뜻이 거든요. 다시말해서 이 과부는 그냥 복수해 달라는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당하게만 다루달라는 거예요. 이 과부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요? 먼저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출 22:22). 시편 68편 5절에는, 하나님이 바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 이시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농부에게는 밭에서 레위인, 과부, 고아와 객이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조금씩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룯기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신약시대로 거슬러 올라오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떠나실 때에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4:18).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뭘겠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현실을 보면, 무고한 사람이 불의하고 무정한 자들에게 희생되었던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일로, 유대인 과부는 남편의 유산 상속자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는 당시 사회상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해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막 12:40).

모르긴해도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과부도 이와 비슷한 처지였을 겁니다. 그 억울한 일을 하소연해도 안들어주니까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던겁니다. 3절에서도 “자주” 라는 표현을 읽을 수 있듯이, 열심을 다해 강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이 비유의 핵심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죠. 어느정도는 맞는데, 여기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고집이 참 있었는데, 그렇다면 마치 어린 아이가 끝까지 고집부리면 부모는 할 수 없이 불량식품 사주고, 비싼 장난감도 사주고, 아이가 고집을 부리면 뭐 아이가 스포일되든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요구를 들어주는게 맞나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자주 배우길, 목숨을 걸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배웠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리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뜻만 알리기 위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로 끝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재판장에게 가서 사정사정하는 그런 과부의 집요함도 아니고 떼쓰고 고집부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의 테크닉도 아니고, 마음에 간절한 바램을 이루기 위한 아주 열정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오늘 성경말씀을 열심히 있는 과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 같지 않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두고 읽어나가야 바른 해석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해야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먹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니 우리가 사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서는 아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권고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때를 쓰고 기도해야 하는게 아니라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겠습니까? 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원한을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한 하늘 아버지로 믿고 간구할 때 응답 받는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 기도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해서 원하는 건 모든지 소원성취하라고 항상 기도하라는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신 아버지로 믿는 믿음 위에 서있기 위해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해요.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걸 오늘도 믿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오래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놓치니까 쉬지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보며 자주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오해하니까 쉬지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라구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기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면서 여전히 삶이 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옛날이나 지금이 별로 변화가 없는, 아니 더욱 교만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만 더 많아지는 삶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2천년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거듭되는 요청 때문에 마지 못해서 들어주었지만, 정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자기 선택한 자녀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 안에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오래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서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신뢰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자 집시 스미스에게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나고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세요. 그리고 분필 조각을 들고 당신 주위에 원을 그리세요. 그런 다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 주님, 이 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흥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로우신 아버지로 믿고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믿음 위에 서시기 위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영원한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복된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아름다운 삶으로, 순종으로 응답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